

# “27일 목포에서 신명나는 파시 한판”



목포시는 목포항구축제가 '신명나는 파시 한판'이란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목포항과 삼학도 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박홍을 목포시장이 전통파시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항구축제가 '신명나는 파시 한판'이란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목포항과 삼학도 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파시는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을 일컫는다. 다도해 모항인 목포항은 서남해 수산물의 집산지로서 해상과 육상에서 파시가 형성됐다. 목포항구축제는 파시를 재현해 이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통파시존에서 해상에 정박된 60여척 선박에서 참조기와

목포항구축제, 목포항·삼학도 중앙공원 일원서  
선상 어물전 경매 등 프로그램 다채...체험도 풍성

막걸치 등 제철 수산물을 경매하는 '선상 어물전 경매'를 28일과 29일 오후 6시 개최한다. 또 경매프린지에서 청년어부로 구성된 목포산어생산지협동조합 '어생'이 매일 3~4회 '어생그랜드세일'을 펼쳐 갓 잡은 생선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목포수협도 김장철 인기가 좋은 추젓(새우젓)을 판매해 파시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항구축제는 파시 이외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삼학도 난영공원 입구는 남행열차 포차, 추억의 물리장, 추억의 선창거리 등 향수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해 과거 여행을 맛볼 수 있다. 중앙공원에서는 가을꽃과 산책로를 따라 가족 단위의 기획체험공간 20여개가 마련되고, 전라광장에는 코스모스축제, 어린이 명랑운동회와

항구그랑비행이 개최된다. 공연도 풍성해 전야제 행사로 평화광장에서 목포가요제를 열린다. 27일 오후 7시30분 '항구음악회'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가 대거 출연해 가을밤 항구를 낭만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어 29일 오후 7시30분 폐막식 '바다콘서트'에는 헤이즈, 다이나믹 듀오 등 인기가수가 축제를 마무리한다. 28일 오후 4시 중앙무대에서는 합창, 팝 등 유명 댄서들의 퍼포먼스 대회인 스트릿 커넥션(Street Connection)이 펼쳐진다. 박홍을 목포시장은 '가을에 개최되는 목포항구축제에서 수산물 경매와 추억의 시간여행 등 색다른 재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포에서 맛과 낭만으로 가득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암군, 서울청과(주) 초청 농촌체험행사 문화유적지 탐방·참발효 음식 체험 등 진행

영암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영암군 일원에서 소비자초청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했다. 군에 의하면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 주관으로 개최됐고, 서울 가락동시장 서울청과(주) 김용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을 초청해 전통영양군수 서육원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장 회원농협 조합장, 무화과와 단감영농조합법인 대표 및 회원, 귀농·귀촌회원,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군에서 초청한 방문단은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도기박물관, 가야금테마공원,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관람했고 도감사 등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월출산 기차궤길 백반석의 기운을 느끼며 맨발로 걸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며 힐링과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영암읍에 소재한 참발효연구소에서 참발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발효음식 체험행사도 가졌다. 이번에 군을 방문한 서울청과

(주)는 우리나라 5대 청과중 으뜸가는 청과회사로 영암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상호 신뢰속에 지난해는 75억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올 9월 현재까지 무화과, 단감 등 1,338톤에 약 44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서울청과(주) 김용진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에게 앞으로 영암농산물 판로확보에 힘써 주길 바라며, 본격적인 과수 수확철을 맞아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약 100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영양군수는 환경영양사 인사말에서 "영암 농산물의 농산물 판로확보와 높은 가격경쟁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서울청과(주) 임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상호 활발한 농산물 유통정보 교류활동을 통해 더 많은 영암농산물을 판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강원훈 기자

## 곡성군, 2017 국제농업박람회 홍보판매관 준비 '척척'



곡성군은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홍보판매관 설치와 농특산물 판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홍보판매관 설치와 농특산물 판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농특산물 판매관에 참여할 농가(법인)대표 4명이 참여해 간담회를 갖고 박람회 상세 참여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전시테이블을 적정규모 구성해 있다. 위생적인 복장 등 참여농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찾았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곡성군은 관광과 농업을 연계하는 홍보판매관

관을 꾸밀 계획이다. "가고싶고 머물고 싶은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이라는 주제의 곡성홍보관은 섬진강기차마을, 1004잠이공원, 섬진강변 철쭉꽃길을 달리는 증기기관차·레일바이크 등 관광자원과 1,000원 버스·100원 효도택시·행복한 관광택시·장애인콜택시 등 우수 교통정책 소개, 유익한 귀농귀촌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제농업박람회홍보를 찾는 소비자가 전남시군 홍보판매관 통합부스내 곡성관을 방문하여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의 가능성과 농업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강진서 20일 개막

제24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남도읍사 1번지 강진에서 20일 개막한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역사 있는 전남도 대표 음식문화축제로 남도 22개 지역의 대표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축제다. 올해부터 3년간 강진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22일까지 3일간 '강진만 갈대숲으로 떠나는 남도음식 피크닉'을 주제로 펼쳐진다. 특히 축제에 앞서 '남도음식 서울 나눔이'라는 수도권 사전 홍보행사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축제장으로 적극 유도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강진만 갈대숲 1000인 오찬 초대'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갈래리스트 황교익의 음식인문학 콘서트를 열고, 남도음식을 대접해 남도의 훈훈한 인심과 정갈한 맛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진=최재명 기자

## 해남 일자리 창출 주민 아이디어 "눈에 띄네"

해남군,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퇴직인재 풀뱅크 대상 선정

해남군이 실시한 일자리 늘리기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퇴직이력제 인재 풀뱅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안이 대상을 차지했다. 해남군은 국정 최우수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 총 62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서면심사 등을 거쳐 최종 19건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퇴직이력제 인재 풀뱅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전문

성을 지닌 퇴직인력을 풀뱅크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고향의 맛이 그리운 관광객을 위한 로컬식당 운영'과 '해남고구마 연계 다문화 잡채거리 조성'가 최우수상을, '쌀 가공 확대 및 6차 산업화' 등 3점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학생부는 '청년층 직업체험 프로

그램 활성화'와 '동네 빵집 손을 잡고 지역특산물 판매'가 최우수상으로 결정됐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방글 클린 방역사업단 운영' 제안이 대상작으로 결정됐으며, '문화·관광·스포츠재단 및 지원센터 육성' '청년 소상공인 가업승계'가 최우수상을, '에너지복지도우미 채용 등 3점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